

내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광주서 열린다

기획재정부 개최지 공모 선정
7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전국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350여 부스 제품·서비스 홍보

2020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전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전시 홍보하는 박람회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2020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3일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내년 7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시민 3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 350여 개의 사회적경제 및 정책 홍보 부스와 부대행사 등을 갖추고 열리는 대규모 행사다. 광주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응축된 강한 공동체정신과 사회적경제의 특정한 토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과 무등산 국립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별프로그램,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특별전 시판, 공공구매 대규모 협약식 등 차별화된 박람회 개최안을 제시해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광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1월 말 기준 1116개다. 사회적기업 166개, 마을기업 60개, 협동조합 842개, 자활기업 48개 등이다. 제조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상호 연대해 성장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초 '민선 7기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민간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판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금융 접근성 제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광주시 구종천 일자리정책관은 "광주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겠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착한소비자 확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마옥천 (주)베비에르에프앤비 대표(왼쪽)와 이홍섭 광주시장, (주)하나텍 홍범석 대표가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텍 홍범석·베비에르에프앤비 마옥천 대표 '2019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자금지원 확대 등 우대시책 채용하고 다양한 직원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하며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베비에르에프앤비는 지역 유명 베이커리업체다. 2000년 제과점 개점 후 2014년 업계 최초로 해썬(HACCP) 공장을 설립, 지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했다. 마옥천 대표는 베비에르 산하 200여 명의 정규직 고용안정은 물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속 연수별로 해외 연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경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덕분에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며 "귀감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인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 선정해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세부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를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5개 자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 합동단속

광주시는 4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변호관을 때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는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광주시 전체 체납액의 18.9%에 이르는 6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액 환수를 위해 추진됐다. 변호관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은 5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꾸리고 관내 전역에서 합동 영치활동을 펼친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변호관 영치 활동을 벌여 4863대를 영치했으며, 19억원의 징수성적을 거뒀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해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나세요" 광주시공사(시장 노경수)와 노동조합(위원장 김영만)은 지난달 29일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전달' 행사를 가졌다. 저소득가정, 독거노인가정 등 10가구에 2800장의 연탄을 노경수 시장과 임직원 이 함께 배달했다.

광산구 하남중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중심 개선

'현장 경험' 주민 건의 반영
대각선 횡단보도 만들고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하남중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강화된다. 월곡산정로 주변에는 하남중학교와 하남중앙·어동·월곡초등학교 등 학교 시설이 밀집했다. 거의 전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통학생과 주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광주시는 우선 이달 중순까지 하남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선한다.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신호등 3개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내년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 외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건널 수 있게 돼 이동하기 편해지고 차량과 보

행자 간 얽히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기둥이 노란색으로 된 노란신호등은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공사는 광주시가 지난 9월 광산구 월곡동에서 개최한 제110회 현장 경험의 날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초등학교·중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요구'에 따른 조치로 추진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서구, 쌍촌동 원룸밀집지역에 안심택배 보관함

광주시 서구는 쌍촌동 원룸밀집지역인 오월어린이공원에 안심택배 보관함(사진)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주저지 노출을 꺼려하는 여성과 업무 등으로 낮 시간 택배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다. 화정4동 주민센터, 상무금호보건지소에 이어 세번째다. 이용방법은 택배 배송지를 안심택배보관함 주소로 지정하고, 택배기사가 택배함에 불건을 넣고 수령자에게 보관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안심택배 보관함은 택배 도착 후 48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48시간 초과시 하루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구 관계자는 "쌍촌동은 서구의 대표적인 원룸 밀집지역으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택배보관함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해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